

## 추모사하는 김원웅 광복회장

등록 2019.08.17 12:22:49



【파주=뉴스시스】김선웅 기자 = 17일 오전 경기 파주시 탄현면 장준하추모공원에서 열린 故 장준하 선생 44주기 추모식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이 추모사를 하고 있다.

장준하 선생은 1944년 일본군에 징집됐다가 6개월 만에 탈출해 광복군 간부훈련을 받고 1945년부터 대한민국임시정부 한국 광복군 제2지대에 배속됐다. 이후 미국 전략정보국에서 훈련을 받고 국내에 특파됐으며 해방 후에는 잡지 '사상계'를 간행하면서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다가 여러 차례 투옥되기도 했다. 제7대 국회의원에 옥중 당선된 장준하 선생은 유신체제 반대운동을 벌이던 1975년 포천 약사봉에서 서거했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사인은 규명되지 않았다. 2019.08.17.

mangusta@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